

41 반도체 조립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

성별	여성	나이	41세	직종	반도체 조립공정 종사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7년부터 □사업장에서 반도체 조립 공정 중 SAW작업을 하였고, 2007년 광주공장으로 전보되어 동일한 업무를 하다가 2009년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되어, 수술,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.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2015년 퇴사하였고, 같은 해에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약 28년 간 성수, 광주에 위치한 □사업장에서 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주로 웨이퍼 절단작업에 종사하였다. 이는, 블레이드로 웨이퍼를 잘라 개개의 die로 분리하는 공정으로, 작업자는 대기 중이 웨이퍼 카세트를 기계에 로딩하고 커버를 닫은 뒤 작동을 시킨다. 작업 시간은 2008년 8월까지 3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,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이었다. 이후 4조 3교대로 구성되었으면, ○○○ 2014년 6월까지 22년간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4 유해인자

- 심리, 정신적 요인(야간 근로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9년부터 좌측 유두의 발적 및 주위가 단단해지는 등의 증세를 느껴, 같은 해 7월 경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후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았고, 2009년 8월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유방암 확진되었다. 이후 항암치료와 방사선

치료 및 호르몬 치료를 하며 경과 관찰 중 2011년 유방암 재발되었고, 2015년에 암이 뇌 등으로 전이되어 수술 시행하였으나 증세 악화되어 2015년 11월 사망하였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는 1987년에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반도체 조립 공정 중 웨이퍼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. 작업환경측정에서 상병과 관련된 유기용제는 불검출이었고,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며 작업 공간 내에 전리방사선 발생 장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밖에 유해인자로, 근로자 ○○○는 약 22년간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하였지만, 이는 국내 학회 및 해외 직업병위원회의 야간작업관련 유방암 발병 권고기준인 “주1회 이상 야간작업 25년 이상 수행”을 참고하였을 때,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, 근로자 ○○○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. 끝.